

## 美, EU 이어 '낙농품 수출보조금' 재개

미국이 잉여 우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품 수출보조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미국의 통상전문매체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는 5월22일 낙농품 수출업자들에게 1억 1,660만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낙농품 수출보조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기침체로 우유 소비가 급감, 낙농가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낙농가들이 받는 유대는 100파운드(약 45.3kg)당 지난해 18.32달러에서 올 3월에는 11.55달러로 떨어졌다. 미국 농무부는 수출업자들에게 현금을 지급, 낙농품 수출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이러한 계획에는 국제 낙농품시장에서 유럽연합(EU)이나 뉴질랜드·호주 등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 정부는 "EU가 먼저 수출보조금을 부활시켰다"며 "미국의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5일 EU 집행위원회는 낙농품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출업자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 아래 수출보조금을 다시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리안 피셔 보엘 EU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계산하고 난 뒤 수출보조금을 도입했고, EU가격과 국제가격을 같게 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이 보조금 도입에 대한 구실로 EU를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도 비난의 대열에 합류했다. 팀 그로서 뉴질랜드 상공부 장관은 "미국의 결정은 모든 무역정책 중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DDA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낙농품 생산량의 95%를 수출하는 뉴질랜드는 미국과 EU가 벌이는 보조금 전쟁이 자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유럽연합, 미국산 호르몬 투여 쇠고기 관련 잠정합의

유럽연합위원회는 최근 미국과 호르몬 투여 쇠고기 무역에 관한 분쟁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호르몬이 투여되지 않은 고급쇠고기의 무관세 수입량을 3년간 2만톤으로 하고 이후 4만5천톤으로 확대하며, 미국측은 유럽연합에 대한 제재 조치를 4년 이후 철폐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에 무역제소를 18개월간 하지 않으며 향후 장기적인 합의를 추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지난 '89년 1월부터 호르몬이 투여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고 유럽연합에 대해 무역제재 조치를 취해온바 있다.

## 독일, 유대하락 낙농가 특별재정 지원책 시행

유가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독일 낙농가들에게 특별 재정 지원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독일 농무성 장관이 발표하였다. 이 같은 독일정부 발표는 낙농가, 유업계, 소매유통 업계관계자들과의 회동이후 발표되었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되었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월 독일낙농가들의 대규모 시위이후 이루어졌는데, 독일 낙농가들의 유대는 1리터에 24유로센트 수준으로 지난 '08년 40유로센트에서 40%가 하락하였으며 생산비 수준인 30유로센트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지원책에는 낙농가 대출금에 대한 정부 보증과 유럽연합 직접 보조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자료출처 : www.cattlenetwork.com, 일본 해외농축산정보, Reuters, www.haaretz.com 등